



올해의 선수 농쳤지만 내년엔 '申세계' 연다

신지에 3관왕 위업

할렐 골프코 출신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가 아쉽게 LPGA '올해의 선수'를 농쳤지만 올시즌 신인왕·상금왕·다승왕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관련기사 18면>
신지에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리안 골프장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함께 6언더파로 공동 8위에 그쳤다. 이로써 신지에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59점을 기록, 준우승으로 12점을 추가해 160점을 획득한 오초아에게 단 1점차로 뒤져 올해의 선수상을 내주고 말았다.
오초아는 2006년부터 4년 연속 올

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최저타수상(베이트로피)도 함께 거머쥐었다.
올해 LPGA 첫 시즌을 맞이했던 신지에는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1년만에 올해의 선수와 신인왕·상금왕을 석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코앞에서 놓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신인왕·최연소 상금왕·다승 공동1위(3승) 등 3개의 타이틀을 한꺼번에 휩쓸며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다.
신지에는 "퍼트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잘하지 못해 올해의 선수를 놓친 것인데 매우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우승컵은 7언더파 65타를 몰아쳐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에게 돌아갔다. /서승원기자 swseo@

가창오리떼 群舞 노을속으로 날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창오리떼가 남도를 찾았다. 24일 영암호 일대에서 저물어 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가창오리떼의 군무가 펼쳐졌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지난주 영암호와 고천암호, 금호호에 모습을 드러낸 가창오리떼는 추수가 끝난 호수 주변 논과 밭에서 곡식을 주워 먹으며 겨울살이 준비에 들어갔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5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떼 중 90% 이상이 찾아드는 남도는 겨울 철새의 요람이자 탐조객의 낙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창오리떼는 11월 중순 영암 고천암호를 비롯한 남도아들 겨울을 보낸 뒤 이듬해 1월 말이나 2월 초순께 시베리아로 돌아간다.
/최현배기자 choi@

정쟁에 밀려 광주 U대회 특별법 연내 제정 난항 이러다 국제망신 당한다

조직위 구성 시한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 하계U대회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직위 구성 등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 국제대회스포츠 연맹(FISU)의 규정을 어기게 되는 등 국제 신인도 하락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5 광주 하계U대회 특별법은 당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경기지원특위 재구성

을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이후 다시 광주 하계U대회 특별법안 통과와 수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의 막판 예산 심의 등으로 국제경기지원특위 재구성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 재구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1~2일과 8~9일에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광주 하계U대회 특별법이 통과되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올해 안에 광주 하계U대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직위 출범이 내년으로 늦어지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FISU 측의 대회 준비상황 점검 등에 대비할 수 없는데다 하계U대회 종합계획 수립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로 FISU 규정에는 대회 유치 확정 이후 6개월 내에 조직위를 구성해야 하나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미 조직위 구성 시한(11월23일)마저 지키지 못해 국제적 신인도 하락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 하계U대회 조직위가 내년 8월 광주에서 개최할 '세계 여자 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준비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어렵다면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광주 하계U대회 특별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운영기자 tuim@

중국 "무안 한중산단 투자 확대"

공식입장 첫 표명

무안기업도시 한·중 국제산업단지(한중산단) 개발사업에 중국 측이 최근 투자확대 의사를 밝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의 투자확대 의사는 이번이 첫 공식적인 입장임에 따라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식경제부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전남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서 ▲한중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중국 측 투자확대 ▲중국 측 입주예정 기업 현황 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한중산단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중산단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한국 측은 "요건이 되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한국 측은 한중산단 개발사

업에 참여한 일부 한국 측 투자자들이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중국 측이 이들의 투자지분을 인수해 한중산단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애초 중국 측의 자본금 감차 및 청산 등의 요청과 다른 모습이어서 향후 중국 측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 측이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한국 측 투자지분을 인수할 경우 한중산단의 중국 측 지분은 애초 51%에서 73%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 측 금융기관들이 투자 선결 요건으로 요구해 왔던 한중산단 중국 측 입주 예정기업들의 명단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며 가능하면 보내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중국 측의 한중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이 같은 전향적인 자세에 따라 다음달 1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산단 개발사업 주주총회에 결과에 따라 한중산단 개발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1. 모집인원 및 분야 가. 모집 정원 30명 나. 모집 분야 - 행정학 석사 과정(행정학 전공) -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사회복지학 전공) 다. 모집 대상자 - 학부 졸업생	3. 응시료 및 접수 가. 응시료 - 2009. 11. 23(화) ~ 12. 3(수) 나. 접수처 - 2009. 11. 23(화) ~ 12. 1(수)
2.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나. 학부 졸업생 : 모집인원의 70% 이내 다. 일반전형 : 원고금 5만원(합격 시 반환) / 특별전형 : 원고금 10만원	4. 입학지 및 접교시험 가. 행정대학원 행정학 나. 홈페이지 : http://www.jpu.ac.kr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퍼시스 쇼룸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층 더 나은 서비스, 보다 편안한 차를 선택하세요.

퍼시스

FURSIS | TEEDS | MOON